

책의 종교

손봉호 (대표주관)



이슬람은 기독교를 유대교, 이슬람과 함께 '책의 종교'라 부르면서 다른 종교들과 구별한다.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책으로 믿고, 특히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이며 권위로 수용하기 때문에 '책의 종교'란 별명이 매우 잘 어울린다.

문자가 없다면 대부분의 정보는 입과 귀로 전달되고 기억 속에 보관될 수밖에 없다. 사람의 기억은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관하고 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계시는 사람의 깨달음이나 경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억만으로 보존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문자로 정착된 정보는 긴 시간동안 정확하게 보관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어서 전파효과도 매우 크다. 만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처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는 세계적인 고등 종교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계시는 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수되었고 권위를 가진 객관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기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으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검토와 재검토가 가능하고 그 옳음과 그름은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다. 그 덕으로 신학과 전통은 더 정교하게 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 종교개혁 때 루터가 제시한 95개 조항도 그때 마침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에 전 독일에 확산되었고 그것은 종교개혁 성공에 크게 이바지했다. 문자와 책은 복음 전파와 기독교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믿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특히 개신교는 처음부터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책의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의 문자습득과 독서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영국에서는 흄정역(King James Version)이, 독일에서는 루터의 번역이 영국과 독일 문어의 성격을 결정했다 할 수 있다. 흄정역과 루터의 번역을 전제하지 않고는 영국과 독일의 문학과 문화를 바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의 우리말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에는 한글 성경이 결정적 공헌을 했다. 해방 후 한글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제시대에도 성경을 읽었던 기독교인들이 다수였다.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지만,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와 책이 보급되고 확산될 수 있었다.

문자가 있고 책이 읽혀지는 문화와 그렇지 못한 문화는 다를 수밖에 없다. 책이란 단순히 정보를 마구 던져 넣어 놓은 바구니가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중요하고 유용한 것들을 선택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책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할 정도의 지적 능력과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며 세련되고 정교한 감수성조차 요구된다. 그런 성취는 독자들에게 전수되고 축적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그치지 않는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훈련받고 창조적인 생각을 자극받으며 사물을 더 깊이 그리고 넓게 보는 능력을 같이 얻는다. 그러므로 책을 쓰고 읽은 공동체는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개신교인의 87%가 선진국 혹은 중진국에 살고 있다 한다.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개신교인이 많아졌기보다는 개신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

가 발전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책의 종교는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오늘날엔 교육이 일반화되어 모든 사회에 책이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아직도 기독교인들의 독서량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 비교우위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책을 쓰고 출판하는 것이 돈이 되자 읽을 가치가 없는 책, 읽으면 오히려 해로운 책들까지 양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좋은 책을 올바르게 읽도록 힘써야 할 때가 되었다. 그저 그런 책 열권을 읽기보다는 고전 한 권을 열 번 읽는 것이 더 유의하다. 고전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검증 받은 것들이므로 안심하고 읽을 수 있다. 긴 역사를 가진 기독교는 위대한 고전을 많이 생산해 놓았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칼뱅(J. Calvin), 루터(M. Luther), 아렘피스(Thomas A Kempis), 번연(J. Bunyan), 카이퍼(A. Kuyper), 바빙크(H. Bavinck), 도여베르트(H. Dooyeweerd), 루이스(C. S. Lewis), 니버(R. Niebuhr), 본회퍼(D. Bonhoeffer), 쉐퍼(F. Schaeffer),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 프란팅가(A. Plantinga) 등 기라성 같은 저자들이 쓴 깊이 있는 책들이 얼마든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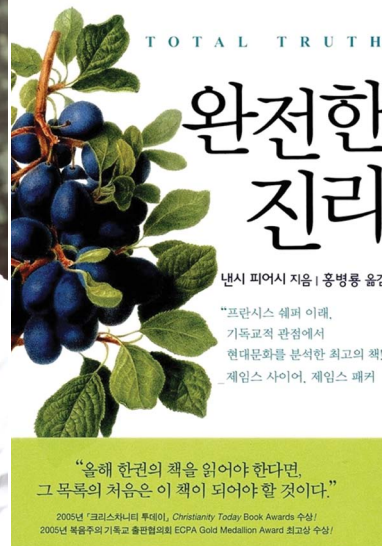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은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좋은 책도 마찬가지다. 읽고 이해했다면 그것이 신앙과 인격 성숙에 도움이 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가치가 있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 · OCTOBER · 2013



WORLDVIEW

2013년 10월호 WORLDVIEW 통권 160호



표지인물
게리 베커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06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온전케 하심을 기억하라 _게리 베커 (인터뷰어 :조성표)

SPECIAL

14 왜 그리스도인이 시를 읽어야 할까 _조산권
18 명저와 고전을 손 가까이 두자 _송광택

COLUMN

02 대표주간 책의 종교 _손봉호
24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씨, 멘토에게 묻다! _신국원
28 HOW.TO.주일학교 관계가 사라진 비전 _신동열
32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 교사 필독서 〈완전한 진리〉_이재영
53 특집 분단을 넘어서 _송영대

CULTURE

57 유머 _손봉호

BOOK REVIEW

44 서평 한국교회, 처음 예배당 _이상규
48 서평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_장수영

NEWS

58 사무국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전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신호영
편집위원 김정호, 김지원, 권태경,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황의서
자문위원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교정/교열 김선경
사진 신호영
디자인 황정희, 강새날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기독교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온전케 하심을 기억하라

🎙 인터뷰어 **조성표**(경북대 교수, 실행위원장)

국제기독교대학컨퍼런스에서 '서구의 기독교 고등교육'을 주제로 발표한 기독교 개혁교단 세계선교부(CRWM)의 디렉터인 게리 베커(Gary Bekker)를 동역회 실행위원장인 경북대학교 조성표 교수가 만났다.



Question 조성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몸담고 계신 기독교 개혁교단 세계선교부(Christian Reformed World Missions, 이하 CRWM)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게리 베커 CRWM은 하나님의 구속을 전파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50여 개국에서 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수많은 동역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주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특별히 미전도 종족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와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독교 교육기관 및 교육자들과 협력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관련 단체들이 각자의 상황과 배경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이번에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성장 배경이나 인생의 전환점 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게리 베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인생 최초의 전환점은 다섯 살 무렵인 것 같습니다. 화학을 전공한 아버지는 어느 기업에서 국방에 관련된 연구를 하셨는데, 극비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온 가족이 펜실베이니아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전학한 학교에는 나와 같은 과학자 집안 학생들이 50여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팔래치아 산맥에 위치한 산골 마을이라 부모님이 광부나 농부이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uestion 조성표 그렇군요. 그러면 선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언제부터 인가요?

Answer 게리 베커 그로부터 6년 후 아버지의 연구가 마무리되어 뉴저지로 돌아오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에드워드라는 분을 통해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나중에 신학교에 가게 되고 선교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나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의 믿음과 삶이 전 세계적이라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마치고 필리핀으로 가서 7년간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훈련하는데 힘썼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조금 특별하게 박사과정을 이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Answer 게리 베커 저는 트리니티기독교대학(Trinity Christian College)에서 학부를, 칼빈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육인류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신학이나 선교학을 떠난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신학이나 선교학도 해석, 교육학과 인류학도 해석에 관한 학문이라 서로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조성표 신학대학 대신 공립대학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nswer 게리 베커 사실 저는 의도적으로 공립대학을 택했습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사역하는 데 신학대학보다 공립대학의 학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진학을 준비하면서 칼빈대 총장님과 상담도 하고 추천서를 부탁드렸는데, 신학대학에서는 내용(contents)을 배울 수 있지만, 일반대학에서는 연구방법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연구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미시간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감사하게도 고든콘웰신학교(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수직을 제의 받았습니다. 고든콘웰신학교는 학문적 수준도 높고, 규모도 제법 큰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매일 도전적인 환경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식견도 넓히고 좀 더 다양하고 넓은 세계의 사람들과 기관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칼빈대 학장이 될 수 있었고 은퇴 후에는 다시 본 선교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자, 이번 국제기독교대학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화제를 바꿔 볼까요? 주로 고등교육에 대해, 먼저 오늘날 고등교육이 처한 현실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Answer 게리 베커 네, 오늘날의 환경적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이동, 교육과 소득에 따른 계층화, 그리고 종교적 다원주의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이동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 간, 국가 간, 심지어 대륙 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410만 명이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10년간 두 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인 유학생들도 1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는 전 세계 유학생들의 3.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동들은 주로 고등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1억 7500만 명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1100만 명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는

다고 반드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교육은 신분상승의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종교적 다원주의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데요, 사회가 세속화 되어 가면서 다양한 종교들이 부흥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Answer 게리 베커 그렇습니다. 피터 버거(Peter Berger)와 안톤 지더벨트(Anton Zijderveld)는 오늘날을 다원주의 시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인종, 종교 등에서 다양한 집단이 평화롭게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다원주의는 ‘종교는 쇠퇴하고 이성이 지배할 것’이라는 현대주의와 대립되는 이론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열정적인 종교운동에 의해 세속주의가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열정적인 종교운동은 이슬람, 오순절 교회, 몰몬교, 로마 천주교, 영국 성공회, 정통 유대교, 중국의 유교 등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파급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Question 조성표 기독교 입장에서 고등교육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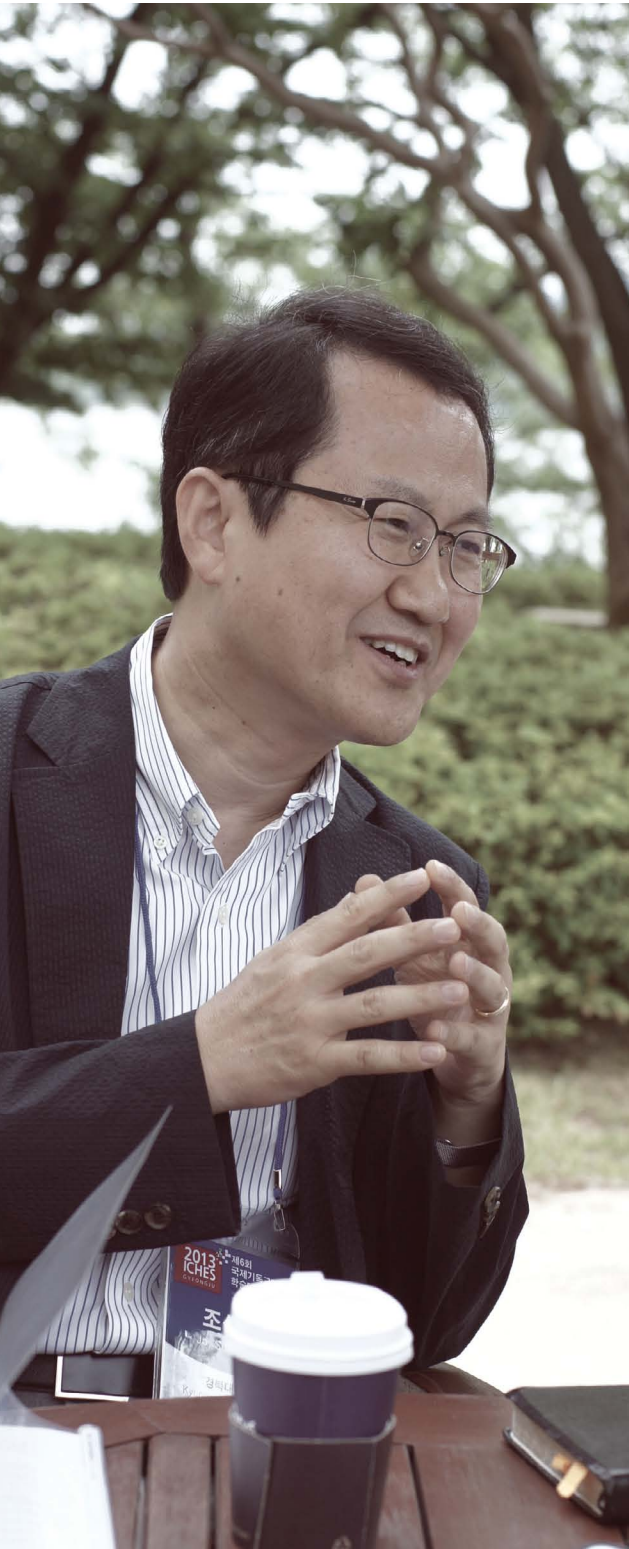
Answer 게리 베커 네. 특별히 개혁주의/칼빈주의자들이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게리 베커 선교 관점에서 고등교육을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3세기의 도미니크 교단도 선교 목적으로 고등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에 의해 현대적인 고등교육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 등 주요 대학들이 선교 초기에 설립된 기독교대학들이고, 이 대학들이 한국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Answer 게리 베커 좋은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연구하고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열정적인 호기심과 놀라움, 기쁨을 가지고 양육하고 확신하고 찬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요.



Question 조성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기독교세계관학술 동역회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 목사,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swer 게리 베커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도 함께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어울려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에게서 이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종교적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게리 베커 종교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영성이 정통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은 그분에게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다.”고 했고, 칼빈은 “신앙의 씨앗은 하나님의 형상을 열매 맺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선배 중 존 디 코르네(John C. De Korne)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중국인의 제단>(Chinese Altars to the Unknown God)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비기독교 국가를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 형제로 인도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다.”

코르네(Korne)은 선교사가 명심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1. 기독교의 유일성과 궁극성
2. 다른 종교의 한계성
3. 모든 종교는 부분적이거나 진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Question 조성표 고등교육은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의 교육으로, 주로 전공 교육이라 복음 전파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견제 세력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Answer 게리 베커 고등교육은 사회의 권력과 변화의 중심이기에 현대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어려움들 때문에 고등교육 분야에서 복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점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고후 12:9;5:11-21).

Question 조성표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독교학자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Answer 게리 베커 기독교학자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독교학자는 학문과 신앙의 세계를 동시에 아우르며 그 분야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학문적인 일에 충실하여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하며,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도 신실해야겠지요. 직접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기독교 학자는 삶에서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로서, 국가적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조성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진리 탐구의 의의를 깨닫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CRWM의 사역이 주님 안에서 더욱 발전하고 확장되시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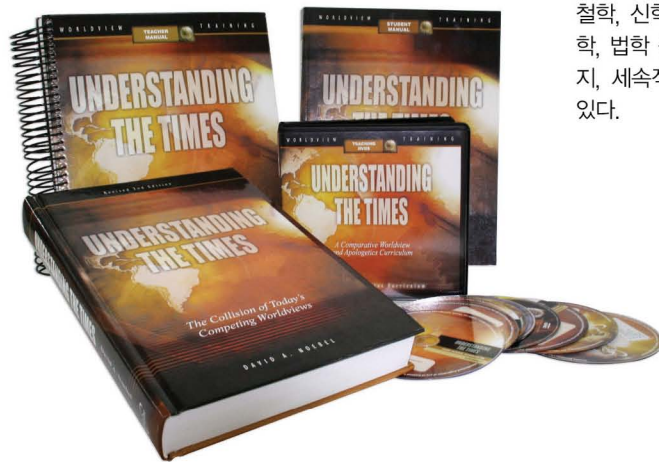
기독교 세계관,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Summit Ministries의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훈련 커리큘럼

WORLDVIEW SPECIAL

A Worldview Curriculum for High School and Beyond UNDERSTANDING THE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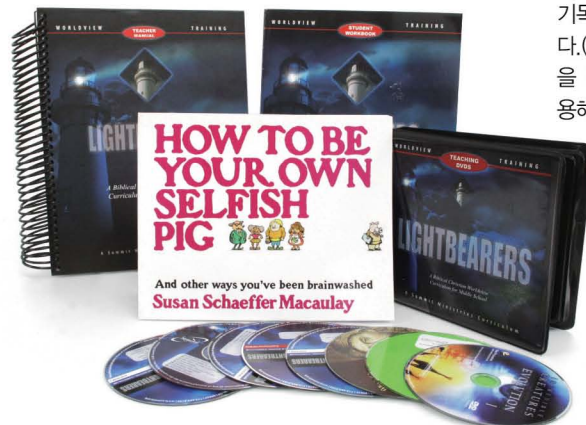
2013년
번역본 출간 예정!



기독교 세계관과 변증학을 다루는 고등학생용 교재이며, 철학, 신학,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생물학, 정치학, 법학 등의 학문을 기독교, 마르크시즘, 이슬람, 뉴에이지, 세속적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 주제: 낙태, 기독교 변증학, 예술, 생명공학, 비판적 사고, 숭배, 안락사, 리더십, 급진적 환경 보호주의, 급진주의 페미니즘, 다원론, 성서의 신뢰성 등
- 구성: Teacher Manual
Student Manual
Textbook
Teaching Video set

A Biblical Christian Worldview Curriculum for Middle School LIGHTBEARERS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중학생용 교재다.(비디오 포함) 오늘날의 인본주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비교하며 학생들은 삶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배운다.

- 주제: 낙태, 기독교 변증학, 숭배, 진화, 페미니즘, 동성애, 실증주의, 상대주의, 다원론, 사회주의 등
- 구성: Teacher Manual
Student Manual
Textbook
Teaching Video set



책 읽는 그리스도인

올바로 믿고
거룩하기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
독서

이 습관으로 이룩해야 할
기독교인의 문화를
돌아보다.

왜 그리스도인이 시를 읽어야 할까?

조신권 (연세대 명예교수)



성경, 아름다움을 노래하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를 배우고 본받아 사는 사람이다. 예수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진리 안에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정식으로 수사학을 배우신 적도, 다윗처럼 직접 시를 쓰신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근 140종에 달하는 비유나 산상 설교(마 5-7장), 내러티브들에는 그분의 풍부한 상상력과 시적 자질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그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의 자질의 밑바닥에는 예술가의 자질과 같은 것, 즉 강렬하고 불꽃 같은 상상력이 있었다.”라고 했다. 예수의 산상 설교는 대부분이 시인데 그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28-29절을 예로 들어 보겠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

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러한 성경의 시나 신앙시, 절품(絶品)으로 알려진 시들을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를 읽는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큰 쾌락을 얻는 것도 아닌 데 말이다. 그러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짙막한 시구에서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최고의 소리를 듣게 되고 내면적 미의 심저(深底)를 들여다보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초라한 들판’에 피었으나 ‘지상의 군왕’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차려입은 그 ‘백합화’를 볼 수도 있고, ‘내면적 미’의 넓은 지평에서 내다보는 그 ‘아름다운 마음의 눈’과 마주칠 수도 있다. 황량한 들판이 비단 융단같이 보이고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본질 곧 내면이 아름답지 않으면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어떤 시인들보다도 아름다운 내면세계와 깊은 신비를 투시할 수 있는 영안과 상상력을 지니신 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권세’보다 더한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예수의 말씀에서 우리는 외적이고 큰 것보다는 내적이고 작은 것,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지상적인 것보다는 천상적인 것,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밖’보다는 ‘안’, ‘아래’보다는 ‘위’, ‘많음’보다는 ‘하나’, 그리고 내재적인 질서와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유하고, 의미화하고, 형상화하는 천상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신앙의 성숙·신장, 풍부한 정서의 고양, 바른 가치관의 형성, 개인과 사회 성장의 윤활유, 영혼의 상흔 치유 등을 위해 시를 읽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세계관을 갖고 그것으로 시대정신과 당대의 문화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경험과 과정을 통해 이러한 세계관을 구성하시게 되었고 그것을 비유와 시 속에 담아내실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가정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경건한 신앙을 전수받으셨으며,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통해 목공술을 익히셨고 영혼을 연단시키며 다듬으실 수 있었다.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쌓고 삶의 지혜와 성숙을 이룩하실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산과 바다를 좋아하셨다. 그분은 단순히 자연의 생태와 그 아름다움 뿐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조화 그리

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섭리를 읽어내실 수 있었다. 즉, 자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런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지혜도 깊어지셨다. 또, 이러한 체험들을 오랜 시간 반추하고 정리하여 언어로 재구성하고 묘출(描出)하신 것이다. 깊이 사유한 후 명료한 언어로 재구성된 경험은 세상의 움직임이나 숨은 질서에 대한 감각을 키워준다. 즉 이 세상과 세상살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세계관이라 한다.

그리스도인, 왜 시를 읽어야 할까?

세계관은 신학이나 철학 같은 사상 체계라기보다 오히려 기본적인 인식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사물을 보는 방식, 또는 그것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 또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다. 또한 세계관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를 결정해 주고 주변 세계의 현상들을 판단·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 지향적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 자연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하고 모델을 제시해 주는 일종의 가치 체계이다. 모델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 이상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과 인생관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 세계관의 전시장 이 바로 시적 언어를 기본으로 하는 문학 작품 특히 시 작품이다. 이러한 시 속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듯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세계관이 바르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삶을 갖게 된다. 그만큼 세계관은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다음은 18세기 말 영국 전기 낭만파의 대표적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의 “런던”(London)이라는 시이다.



런던

윌리엄 블레이크

자유가 허락된 길 위를 나는 걸어 다니네,
자유가 허락된 템즈 강이 가까이 흐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얼굴에서
약함의 징표, 근심의 징표를 나는 보네.

모든 사람들 외침마다
모든 아기들의 공포의 울음마다,
모든 목소리마다, 모든 금지마다,
정신이 버려낸 족쇄소리를 나는 듣네.

굴뚝 청소부의 외침 소리가
검은 교회를 얼마나 간담 서늘하게 하는가,
불운한 병사들의 한숨이 얼마나
피가 되어 궁전 벽을 타고 흐르는가.

그러나 한밤중 거리마다에서 내가 듣는다.
젊은 창녀의 저주가
얼마나 갓난 아가의 눈물을 마르게 하는가를,
그리고 결혼 마차를 병들어 말라버리게 하는가를.

이 시는 1789년에서 1794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1794년 『순수와 경험의 노래』(Songs of Innocence and Experience)라는 시집에 묶여 출판되었다. 저자는 ‘보네’(see), ‘듣네’(hear) 등의 감각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18세기 말 영국 사회에서 경험한 사실을 언어화 하고 있다. 1770~1790년대의 런던은 산업혁명의 위용을 과시할 만한 발전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대도시였다. 증기기관의 발달로 인한 석탄 소비의 증가는 도시의 풍광을 바꿔 놓았다. 굴뚝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건물 외벽은 그을음으로 흰색을 유지하기

London

William Blake

I wander thro' each charter'd street,
Near where the charter'd Thames does flow,
And mark in every face I meet
Marks of weakness, marks of woe.

In every cry of every Man,
In every Infants cry of fear,
In every voice, in every ban,
The mind-forg'd manacles I hear:

How the Chimney-sweepers cry
Every blackning Church appalls,
And the hapless Soldiers sigh
Runs in blood down Palace walls.

But most thro' midnight streets I hear
How the youthful Harlots curse
Blasts the new-born Infants tear,
And blights with plagues the Marriage hearse.

힘들었다. 템즈 강에는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및 원료를 가득 실은 증기선과 창고가 난립해 있었다. 강은 오염되었고 그 흐름조차 자유로워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위해 일찍부터 고단한 일상을 시작했다.

고단하기로는 이른 새벽부터 도구가 가득 든 가방을 메고 집집마다 다니며 굴뚝을 청소하는 어린 굴뚝 청소부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굴뚝 닦아요’란 ‘외침’(cry)이 어린 소년들의 ‘울음’(cry)처럼 들리고, 일



찍부터 생계를 위해 부모와 떨어져 도시생활을 해야 하는 이들의 처지는 도시의 빈곤과 빈곤의 도시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회는 이들을 불러 벽을 하얗게 ‘닦는다’(appall). 그러나 아마도 이들의 ‘외침소리’, 즉 빈민 구휼에 무심한 ‘교회’와 ‘성직자’는 내심 소스라쳐 놀랐을(appall) 것이며, 다행히 양심적으로 성찰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무감각과 위선에 두려웠을 것이다.

1776년에는 미국 독립전쟁에 군대를 보내고, 1792년부터 혁명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한 영국은 곳곳에서 전쟁에 보낼 군인들을 모집 혹은 징집했다. 심지어 당시 국왕이던 조지 3세의 가문인 하노버 왕가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용병을 불러오기도 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와 전쟁에 동원되어 무참히, 무가치하게 죽어 갔다.

한편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들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남편에게 의존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다.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는 여성들은 가정교사나 하녀, 그것도 아니면 매춘밖에 할 수 없었다. 당시 대도시의 여성 매춘 인구 증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위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성 도덕의 위선적인 얼굴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혼전 순결이 교회와 도덕의 가르침대로 준수되고 존중된다면, 과연 매춘 여성들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블레이크의 시에 나타난 런던에는 안타깝게도 매독균 때문에 날 때부터 눈이 먼 아가들의 울음이 퍼지면서 비참하게 독자들의 귀를 관통한다.

우리는 18세기 도시 생활의 이면을 이 “런던”이라는 시에서 읽어낼 수 있다. 어린 굴뚝 청소부의 울음소리와

강제로 징병된 젊은 병사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밤거리 어두운 구석에서 어린 창부가 날카롭게 저주를 퍼붓고 갓 태어난 아기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트린다. 여기에 결혼식이 아닌 장례식에 손을 맞잡은 신혼부부를 실은 영구차 소리가 들려온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런던의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를 통해 세상을 노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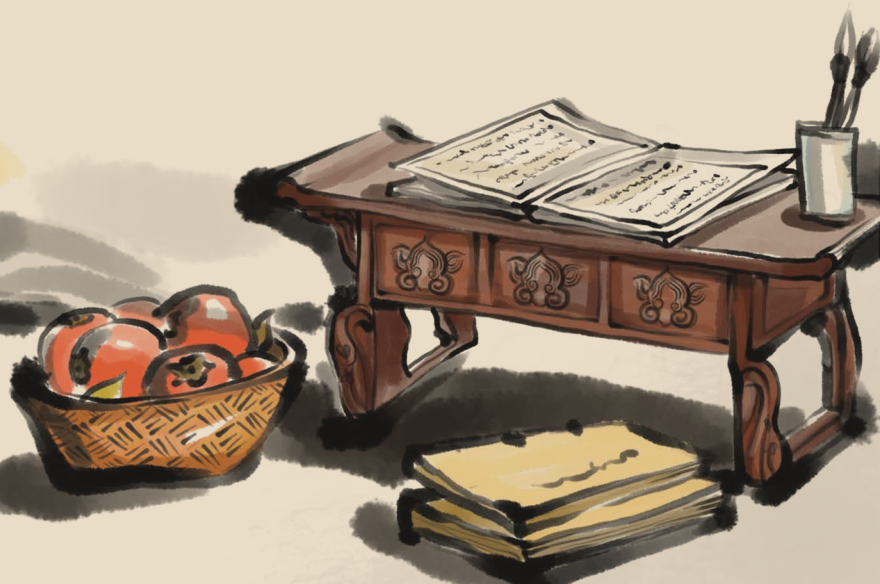
4연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시를 통해,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런던이라는 도시의 퇴폐상과 악의 꽃들이 만발한 어두운 영국 도시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채, 감각기관은 마비되고 순수한 감수성은 쇠멸되어 가고 있다. 동시에 우리의 영안과 영각(靈覺)과 철두철미한 신앙 의식도 사멸되어 가고 있다. 추하고 악한 것을 보고도 의분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황금에 눈이 멀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숭엄하고 고상한 정신이나 아름다움을 보고도 경이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계와 영계를 피폐화시키고 사막화시키는 저속한 막말과 파렴치한 행위에 더 흥분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시집 등의 책 대신 시청각 미디어와 영상매체에만 의존하고 사로잡혀 영성과 숭고한 감성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고 감격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바라보고 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세계관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은 교리나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양질의 문학 작품과 감동을 주는 명품 시들 속에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를 읽어야 한다.



조신건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국내 제1호 영문학 박사이다. 미국 예일대학교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영문학 명예교수이자 현재 총신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한국일터학회 및 한국기독교어문학회 초대회장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존 밀턴의 문학과 사상』, 『문학 속의 기독교적 세계관』 외 다수가 있고, 역서로 『T. S. 엘리엇 시집』 등이 있다.

명저와 고전을 손 가까이 두자

송광택



“독서를 통하여 미지의 것을 탐색하고 자아를 발견해 가는 과정은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귀자(소설가)

독서를 하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다. 여가선용을 위한 독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 그리고 비전을 발견하기 위한 독서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책 읽기가 다 의미 있는 것이지만, 책과의 만남은 때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영혼의 작업이다.

린유탕(林語堂)은 이렇게 말했다. “청년으로서 글을 읽는 것은 울타리 사이로 달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중년으로서 글을 읽는 것은 자기 집 뜰에서 달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며, 노년에 글을 읽는 것은 발코니에서 달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이는 독서의 깊이가 체험에 따라서 다르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책을 통해 인생을 배우게 되고, 동시에 인생의 경험은 독서에 깊이를 더한다.

독서는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지적 탐구이다. 독서가 말로 ‘대학’(大學)이라는 말이 있다. 즉, 독서가 가장 큰 배움의 길이라는 뜻이다. 세상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책은 중요하고, 독서는 삶의 기본을 세우는 필수적 방법이다.

시인 김현승은 그의 시 <책과의 여행>에서 이렇게 독서 경험을 노래한다: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외로울 때
내 영혼이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책을 연다
밤하늘에서 별을 찾듯 책을 연다
보석상자의 뚜껑을 열듯
조심스레 연다

(중략)

나의 행복을 미리 노래하고 간
나의 친구들을 거기서 만난다
아,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주택들
아, 가장 높은 정신의 성(城)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영혼의 무덤들
그들의 일생은 거기에 묻혀 있다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롭과
나의 희망을 노래하여 주는
내 친구들의 썩지 않는 영혼을
나는 거기서 만난다
그리고 힘주어 손을 잡는다

“모든 지도자는 독서가다.”(All leaders are readers.)라는 말이 있듯이, 책과 독서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과 명사들은 대부분 책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청소년기에 책의 세계를 접했고, 평생 책을 벗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읽

은 책은 그들에게 꿈이 되고 사명이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도전이 되기도 했다. Leader가 되려면 Reader가 되어야 한다. 탁월한 지도자가 되려면 뛰어난 독자가 되어야 한다. 독서학습은 지도자가 되는 길이다. “적시(適時)에 적서(摘書)를 적자(適者)에게(The right book for the right reader at the right time)”라는 독서 표어가 있다. 수준 높은 독서의 세계로 진입하려면 각자의 수준에 맞는 적서(摘書)를 찾아 읽으면서 내공을 쌓아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그림책과 동화, 인물 전기를 읽으며 독서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기로 접어들어서는 문학과 역사, 그리고 사상의 세계까지 독서의 스펙트럼이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문학 독서는 중요하다. 문학은 인간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해석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큰 계명 중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문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독자는 문학작품을 통해 다양한 인생을 대리 체험함으로써 인생을 넓게 넓게 그리고 깊이 배운다. 또한 마음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는 정신적 힘을 얻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갖게 된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이며 기독교 변증가였던 C. 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장하기 위해 애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싶어 하는 것이다. 본성적으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관점과 선별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입장에서 전체의 세계를 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상상력으로 상상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고 싶어 한다. 우리에게는 바라볼 창문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가 아는 한, 문학이 가진 특이한 가치요 이점이다. 왜냐하면 문학은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의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시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도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을 읽는 사람은 우선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작품에 나타난 인물, 구성, 주제, 표현 등을 잘 파악하고, 장편소설을 읽을 때에는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전체적인 구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느끼느냐 하는 것이다. 문학의 세계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가공된 세계이다. 이 ‘가공된 세계’를 받아들이는 데는 지성보다 감성이 먼저 작용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 읽는 최고의 방법은 분석이나 논리에 매이지 않고 그저 그 작품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작품 속의 세계가 마치 현실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독서가 문학을 읽는 최고의 방법이다.

“얻어먹는 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남의 집살이가 얼마나 고된 것인가를 스스로 경험해 보라. 추위에서 떨어진 사람이 태양의 소중함을 알듯이, 인생의 힘겨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삶의 존귀함을 안다. 인간은 모두 경험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간다.”

〈신곡〉을 쓴 단테의 말이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안목을 얻고 통찰력도 생긴다.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을 때도 단순한 이해의 차원이 있고 공감적 이해의 차원이 있다. 독자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삶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그는 쉽게 공감적 이해를 하게 된다. 사실 작가들도 독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 작품과 관련된 현장경험을 할 때가 있다.

우리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이미 검증된 훌륭한 작품들은 인류가 간직한 기쁨과 슬픔, 고뇌와 환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은 인간사에 민감해지도록 만들고, 우리들의 정서를 윤택하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가능하면 정평이 나있는 작품부터 읽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고전은 사람됨을 세워주는 ‘교양’의 기본이다. 이는 고전이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교양〉의 저자 디트리히 슈바니츠에 따르면, 교양이란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리킨다. 역사와 문학에 관한 지식은 교양에 필수적이다. 특히 교양으로서의 독서를 이야기하자면 고전과 명작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고전과의 만남은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다. 고전은 양서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들이다. 우리에게 고전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는 고전(古典, classic)을 “옛날의 서적으로 후세에 남을만한 책”, “대가의 저술, 거장의 작품 등 후인의 모범·전형이 될 만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상섭은 〈문학비평용어사전〉에서 고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문학에 한정하여 사용할 때에 이 말은 그 우수한 질적 가치와 영향력에 있어서 문학의 역사상 인정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말한다.” 일반적인 정의를 시도한다면,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그 분야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읽히는 제일급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 읽기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고전을 읽음으로써 과거의 지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고, 현재의 좌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도 전망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전을 가까이하려는 노력은 여러 모로 의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전’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을 느낀다. 필자도 고전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고전은 우리로 고전(苦戰)케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고전은 사실 가볍거나 쉬운 책이 아니다. 종류가 다른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송광택 총신대 졸업, 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월간 창조문예》 신인작가상, 《월간 아동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하였으며, 《빛과 소금》, 《목회와 신학》, 《국민일보》등의 서평 필자로, 《월간 생명의 삶》의 고정 역자로 활동하였다. 극동방송에서 〈신앙서적 길라잡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활약하였고, 현재 CTS 라디오 JOY 〈복콘서트〉에서 신간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독서지도사’ 과정을 운영, 강의하며,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www.bookleader.org) 대표이자 바울의 교회 글향기도서관 담당 목사이다. 저서로 《고전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아이 영성을 키우는 책읽기》, 《기독교인의 서재》 등이 있다.

교회사에서 우리는 뛰어난 기독교고전을 만날 수 있다. 일반인도 인정하는 세계적 고전 중에는 기독교정신의 세례를 받은 문학작품이 얼마나 많은가. 〈기독교고전〉(Christian Classics)의 저자 존벨(Veronica Zunde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나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존 번연의 〈천로역정〉 등의 이러한 작품들은 수세기 동안 호평과 감화로 ‘고전’이란 영예를 획득했다. 이들의 성공은 작품의 우수함뿐 아니라 그러한 집필을 가능케 한 영적 체험이 낳은 결과였으며, 이러한 작품들이 담고 있는 지혜는 심지어 작가가 가진 기독교적 관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전은 인류의 정신적·영적 유산이다. 그 작품들은 세월의 엄중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고전’이라는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 한 사람인 마틴 로이드 존스(1899-1981)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자 책을 읽었다. 특히 휴가기간 중에는 대작을 읽었다. 아브라함 링컨도 휴가나 여가시간을 독서에 투자하였다. W. 클레멘트 스톤은 말하기를 링컨은 “자기가 읽은 책과 자신이 만난 사람과 우연한 사건들로부터 배우려는 습관을 길렀다.”고 한다.

이 가을에 문학과 기독교고전 같은 양서를 손 가까이 두고 마음 창고를 채우자. 그리고 존 밀턴의 말을 기억하자. “가장 좋은 책은 영구 불멸하다.”

이제 책장을 살펴보라. 도전해 볼 만한 책이 눈에 띄지 않는가.

통일 한반도를 향한
생명의 전주곡

80년, 7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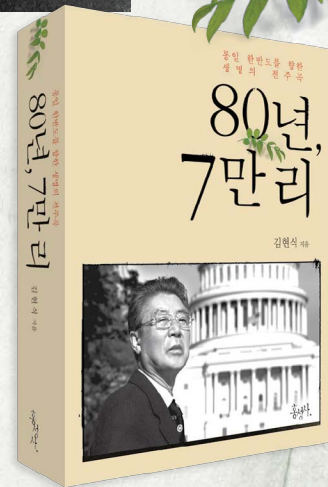


온몸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는
노교수의 피맺힌 외침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정으로 빚어진 험난한 80년 인생, 굴곡진 7만 리 여정!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에 숨겨진 북한의 실상과 굽이진 현대사를 보라! 오직 '당'을 위해 충성하던 북한의 엘리트 교수를 지목하여 러시아에서 남한으로, 남한에서 미국으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

KBS 프로듀서 **이재정**, CCC 대표 **박성민**,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
예수원 대표 **벤 토레이**, 교신대 교수 **임창호** 추천!

홍성사. T. 333-5161 <http://www.hsbooks.com>



김현식 지음 | A5변형
432면 | 13,000원

WORLDVIEW COLUMN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학교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에게 묻다!

HOW TO. 주일학교
관계가 사라진 비전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 교사 필독서
〈완전한 진리〉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에게 묻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모든 걸 다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힘들고 아픈가요?”
힘든 일이 생기거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 이렇게 묻는 학생들에게 어찌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아픔과 고난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죄와 악의 근원에 대해서는 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을 당하면 흔히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라는 낯두리를 할 뿐입니다. “망할 놈의 세상 그렇지 뭐”라고 타박하기도 합니다. 환경과 팔자, 부모, 사회를 탓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초등학교를 좋았는데 나오지 못해서”라고 농담하기도 하지요. 요즘은 “저놈들 때문이라”고 사납게 구는 이들이 많아서 더 문제입니다.

수년 전 쓰나미가 인도양을 휩쓸어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지요. 흉악한 범죄나 전쟁을 보며 사람들은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조금

이라도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죄악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 뿐 아니라 과연 삶에 의미가 있는지도 분명치 않은 것 같으니까요.

전도서의 첫 말씀처럼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의 낙원이 아니고 실낙원임이 분명합니다. 저도 한때는 불행과 가난 속에서 살 의욕을 느끼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엔 세상은 아름답고 의미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무의미하고 고통만 가득한 곳으로 보였거든요.

아름답던 세상이 악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된 이유는 큰 수수께끼입니다.

Q1. 악한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죄악의 본질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 하와를 뺏겼습니다. 여인은 다시 뱀에게 책임을 돌렸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을 사탄에게 돌리는 것도 마땅하지입니다. 또다시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게 만들거든요.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는 사실도 죄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죄악의 원인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 결국 미궁에 빠집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은 신비로 남을 수밖에 없지요.

선악과에 마술적 약효가 있어서 인간이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취하는 인간의 마음에 이미 악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

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함정이나 덫이 아닙니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존중하시는 은총이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죄악으로 얼룩지게 된 이유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악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법이나 도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은 생명과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생명과 진리의 근원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Q2.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릴 사랑하신다는데 세상은 왜 이리도 무섭고 점점 악해져 갈까요?

타락의 결과

어쩌다 뉴스를 보노라면 온통 부패와 범죄 이야기투성이라 괜히 봤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류의 비극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하는 매사를 통해 온 세상에 죄악이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죄는 세상의 역사와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 만물에도 해를 미치지요.

인간 관계는 망가지고 일도 고역이 되었지요. 악은 정신적이며 문화적인 영역으로도 번져 갔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날 영화나 가요가 얼마나 저속하고 퇴폐적인지를 보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도 대량 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쓰이기 십상입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비행기가 그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예는 과도한 개발과 낭비로 인한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이토록 심각합니다. 세상에서 탁월하다고 칭송받는 모든 것들조차 “허무한 데 굴복”하는 모습은 참담할 뿐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문화가 야만보다 오히려 더 악한 경우가 흔합니다. 사람들이 늘수록 죄와 악은 더욱 깊고 넓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얼마 안 되어 홍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쳤지요.

세상은 죄악으로 스스로 멸망을 향해 치달고 있었습니다.

전적 타락

어떤 신학자는 아담과 하와가 본래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고통 없는 출산이나 노동이 무엇인지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잔해로부터 비행기의 본래 모양과 기능을 알아내려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특히 비행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하늘을 날았다고는 꿈도 꿀 수 없을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지·정·의 전체가 모두 뒤흔어졌지요. 몸은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새삼스레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한 것은 그 때 문이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불신과 서로를 탓하는 태도로 파괴되었고요.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인간은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철학이나 종교는 인생의 비참함의 심각성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타락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본래적 결함으로 여깁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잘못된 경제 체제에서 악이 비롯된다고 봅니다. 계몽사상은 교육의 부재로 인한 미신과 몽매가 원인이라 보고요.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와 악의 뿌리는 그보다 훨씬 깊고, 이런 문제들은 증상에 불과합니다.

인간 사회와 문화의 진짜 근본적인 병의 뿌리는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Q3.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나요?

죄악 세상의 미스터리

타락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자연히 그에 대한 대책도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본래 그런 것이라고 초월한 듯 냉소적으로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뇌이며 인생은 별 수 없다고 체념에 빠지기도 하지요. 반대로 모든 문제는 혁명이나 개혁을 통해 해결될 거라는 낙관론을 부르짖는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판도 낙관도 모두 죄악과 타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면 존재의 근원에 대해 알 수 없듯이 죄와 악의 문제는 더욱 더 깊은 미궁에 빠져 들고 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에는 죄악이 널리 퍼졌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불행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죄악과 그로 인한 재난에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움처럼 갈등하며 이유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직접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한다 해도 이해에 한계가 있음을 깨우쳐 주셨을 뿐입니다.

옳은 악의 문제를 보는 안목을 고쳤고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우리도 죄나 비참함에 직면하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을 때뿐입니다. 우리도 견디기 힘든 시험을 겪게 될 때 이 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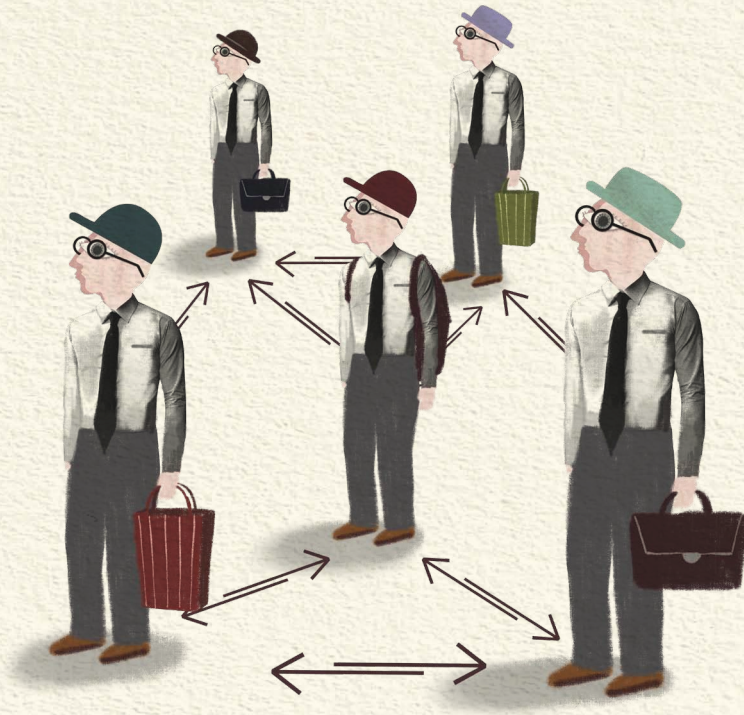
죄악의 미로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성경 진리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NVP) 등이 있다.

관계가 사라진 비전

신동열 (소명교육개발원 대표)



“네 비전은 뭐니?” 중학교 3학년 아이에게 질문했다. 아이가 답하길, “100평짜리 아파트에, 외제차를 타고, 매년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원하는 전자제품은 다 사는 것ियो.”란다. 가슴에 넘쳐나는 말인지 망설임이 없다.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교회에 출석해온 아이이며 그 부모님도 교회에서 주요 직분을 맡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비전은 비기독교인과 다르지 않았다.

세상이 가르치는 비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많이 가지라’, ‘세상이 인정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의 비전이 어느새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가슴 속에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 가르치는 비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유와 세상의 인정, 그리고 감각적인 삶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요소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가르치는 비전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관계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란 무엇인가? 관계란 나와 타인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 공간은 보이는 어떤 공간보다 사람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특강 때 간혹 옆 사람을 향해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하고 인사하게 한 후, 자신과 옆 사람 사이에 있는 공간의 느낌을 경험해 보도록 한다. 거기에는 어색함도 있지만 부드러운 숨털 같은 웃음, 좋은 냄새가 나는 우유와 쿠키 같은 따뜻함도 있다. 이어서 옆 사람을 표독스럽게 찌려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 사이에 어떤 공간이 형성되는지를 느껴보도록 한다. 사랑과 존중을 표현했던 공간과는 달리 긴장과 불쾌감이 감돈다. 특별한 감정 없이 찌려본 것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관계의 공간이 되었음을 학생들은 충분히 느낀다.

관계를 만드는 것은 능력이다. 누군가는 다른 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지만, 누군가는 지저분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타인 및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법령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마 5:43-44),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는 바울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한 관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교회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꿈에 이러한 관계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이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고 하자. 하얀 가운에 목에는 청진기를 두르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그런데 의사는 누구와 관계를 맺을까? 환자들이다. 환자 중에는 가난한 이들, 못 배워서 의사의 말과 의료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죽음을 맞는 환자들도 있다. 의사의 비전은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어 이런 다양한 환자들과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또 다양한 의료 관계자들 곧 병원, 제약회사, 의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 관리들과도 관계를 맺을 것인데, 이들과 더불어 정직과 공의가 반영되는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비전일 것이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떤 직업을 통해 얻게 될 자신의 삶의 모습은 상상해 보지만 그 속에서 어떤 관계들을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관계가 사라진 비전은 세상이 가르치는 비전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비전에서 관계가 사라진 이유

학생들의 이기적인 죄성으로 그들의 비전에서 관계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한 평가가 아니다.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청소년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쟁에 임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된다. 자신의 계층과 무기력함과 싸우고 자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민감하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거나 훈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쟁이라는 환경의 결과로 인해 청소년들이 깊은 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깊은 관계란 마음과 마음이 또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기능적인 관계는 소비와 공급, 의무와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학원에 다니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학과목을 교육받지만, 정작 그들의 꿈과 소망, 슬픔과 아픔 등은 접해 볼 기회가 없다. 학원비를 냈고 그 대가로 교육을 받는 소비적 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가정에 있을 수도 있다. 자녀들에게 의식주에 대한 의무를 다할 뿐 서로 마음과 감정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간혹 있다.

상황은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냉소도 그렇지만, 공부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안쓰러워서 무엇을 더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폐성향의 청소년들도 나타난다.

세 번째, 청소년들은 개인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해지는 성공 이야기는 많이 접하지만, 개인의 수고로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지는 성공 이야기는 거의 접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비전은 사라지고 오직 나의 비전만 남게 된다.

이상의 이유들로 청소년들의 관계상상력은 매우 결핍되어 있다. 관계상상력이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미리 짐작하는 능력이다. 이 관계상상력이 결핍되면 우주의 중심에 오직 자신만이 존재하며 자신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도 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비전에서 관계는 사라지고 점점 더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게 된다.

관계와 필요로 살피는 직업

관계중심적인 비전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비전을 교육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직업과 문화를 관계와 필요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직업은 개인들에게 돈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직업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돈은 그 필요를 채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공받는 것이다.

종종 청소년들에게 입고 있는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라고 한다. 물론 한 명도 없다. 우리 몸을 보호하거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누군가는 실을 만들고 누군가는 천을 만들고 누군가는 염색을 하고 누군가는 재단을 하고 누군가는 만들어진 옷을 운반해야 한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관계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공존한다.

청소년들에게 장차 사회에 나가 어떤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사람은 어떤 직업을 통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타인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 만든 콘텐츠나 서비스가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도, 때로는 고통스럽게, 크게는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과정

을 이해시킴으로써 직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고민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품을 개발하여 공동체도 회복시키고 수익도 창출하는 회사나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직업이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일 뿐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가르쳐야 한다.

다음 표는 직업 사전에 있는 다양한 직업들이 어떤 필요들을 채우는지 18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교육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직업을 갖는다면 세상에 어떤 필요를 채우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상상하도록 돕는다. 물론 여기서 영향력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거룩한 관계를 말한다. 간단한 워크샵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특정 직업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어떤 필요를 채우고 거룩한 관계를 맺고 싶은 지 세 개 정도 고르게 한다.

어느 대안학교에서 필요와 관계의 측면에서 직업을 바라보는 교육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와서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일등을 해야만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제가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아니다.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특정 필요들을 채워나가는 비전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필요의 종류	내 용	기존 직업
01 이론정립	사물이나 문화 현상을 정의하는 필요	교수, 연구원, 철학자, 문화 평론가
02 원자재	문화 생산의 기초가 되는 기본 재료를 공급하는 필요	별목공, 시추기술자, 광물 채굴자, 화공원료 가공자
03 에너지	문화 생산이 가능하도록 동력을 공급하는 필요	원자력 · 수력 · 화력 발전 종사자, 대체에너지 개발자
04 교육	문화 지식을 가르치거나 배우려는 필요	교수, 교사, 강사, 교육공무원, 동화작가
05 정보관리	문화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려는 필요	사서, 기록원, 리서치 기관 종사자, DB개발자
06 경영	문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필요	사업가, 지방자치단체장, 경영컨설턴트, 증권분석가
07 교류	각 문화들이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돕는 필요	유통업자, 번역가, 통역가, 여행 가이드, 외교관, 부동산중개인
08 이익증대	문화의 생산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필요	투자분석가, 외환딜러, 광고기획자, 쇼핑호스트
09 예술	문화를 통해 품위 있는 정서를 경험하려는 필요	연예인, 화가, 음악가, 디자이너, 무용가, 인테리어 전문가, 모델
10 편리함	문화를 통해 불편함을 제거하려는 필요	교통관련 종사자, 가전제품 제조자, 발명가, 비서, 스튜어디스
11 자기표현	문화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함을 드러내려는 필요	코디네이터, 의상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이미지컨설턴트
12 쉼	지친 삶에 활력을 얻고자 하는 필요	호텔리어, 펜션 운영자, 마사지 전문가, 여행기획자
13 건강	문화를 통해 몸과 정신이 탈이 없고 튼튼함을 지키려는 필요	요리사, 의사, 약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14 즐거움	문화를 누림으로 기쁨을 얻으려는 필요	작가, 영화감독, 애니메이션 종사자, 게임기획자, 미술사
15 안전	뜻하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필요	경찰관, 군인, 소방관, 경호원, 차량 정비사
16 환경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필요	환경운동가, 국립공원 관리자, 환경공학자, 조경사
17 돌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도우려는 필요	상담사, 간호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18 견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재하려는 필요	NGO단체 활동가, 변호사, 기자, 정치인, 심판



신동열 총신대학교 신학과, 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다. 전 한국기독교학생회(VF) 간사(서울교대, 인천대 담당)를 거쳐 현재 소명교육개발원 대표이자 수서은혜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호플론 다이어리』, 『소명에 답하다』의 저자이며, 사랑의 교회 청년부 ‘소명아카데미’ 주 강사, 현 드림국제학교 비전과목 주 강사 및 교육기획으로 활동하고 있다.



낸시 피어시 지음 | 홍병룡 옮김 | 복있는 사람

주일학교 교사에게 완전한 진리를

 이재영



저자

저자인 낸시 피어시는 독일의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젊은 시절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또 다른 진리를 찾아 헤매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스위스 라브리공동체(L'Abri Fellowship)에서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를 만났고 '완전한 진리'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녀가 찾은 '완전한 진리'란 '성경의 진리'였다. 그녀는 성경이야말로 종교 뿐 아니라 인생과 온 우주의 궁극적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적절한 진리임을 발견한 이후 '쉐퍼적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낸시는 아이오와주립대학과 기독교 세계관 연구의 산실인 기독교학문연구소(ICS)에서 공부했으며, 카비넨트신학교에서 성경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경 · 과학 뉴스레터', '크리스챤너티 투데이'의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프란시스 쉐퍼 연구원으로 세계 저널리즘연구소에서 세계관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How Now Shall We Live? 찰스 콜슨 공저)와 <The Right Question> 등이 있는데, 1994년에 출판한 <과학의 영혼: 기독교 신앙과 자연철학(The Soul of Science: Christian Faith and Natural Philosophy)>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 및 문화 비평가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세계관의 중요성

저자는 프란시스 쉐퍼가 1981년 4월 노트르담대학에서 강연한 내용 중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기독교는 일련의 복수 형태의 진리들(truths)이 아니라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진리(Truth)다. 종교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 총체적 실재(total reality)에 관한 진리다. 이처럼 성경적 기독교는 총체적 실재와 관련된 진리이며, 그 총체적 진리를 지적으로 붙들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적 기독교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다. 그렇다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이자 가치관을 결정하는 창(window)

혹은 안경(glasses)이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세계관의 뜻은 문자 그대로 세계에 대한 관점이자 성격에 입각해서 모든 실재를 보는 관점을 일컫는다. 세계관은 세계를 잘 항해하는 법을 일러주는 마음의 지도와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를 우리의 내면에 새기는 것이다.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방식을 뜻하는데, 세계관이란 용어의 본래 용법은 상대주의(relativism)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세계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창이나 안경의 색깔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세상이라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세상에 대한 해석과 대응, 삶의 양식과 태도, 나아가 역사관, 인생관 등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즉 세상의 근원, 역사의 방향과 목적, 죄와 악의 원인에 관한 내용과 그 해결책 등이 모두 세계관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관이라는 주제는 종교가 다루는 근본적인 요소이기에 문화의 뿌리이며 종교적 성격을 띄게 마련이다. 따라서 세계관의 대립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자 문화 전쟁이 된다.

세계관 전쟁

몇 년 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10대 청소년 중 2%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된 것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접하는 수많은 폭력물과 포르노 영상, 분노와 증오, 권위에 대한 저항과 이기심을 배양하는 음악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또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생명 존중, 준법, 노동의 가치, 자기희생, 공동선에 헌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국가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통계이며, 미국 사회 내 기독교적 가치관의 혼돈과 변질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사회 · 문화 속 반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상황은 어떨까? 우리는 본래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의 부흥

과 확산까지 10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신흥 기독교 국가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세계관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무속신앙, 불교, 유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고, 최근에는 반기독교운동 또는 반기독교주의라는 시민 사회운동을 통해 반기독교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신론자 등 다양한 계층이 활동하면서 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운동은 어떤 세계관, 철학,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나 목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기독교운동 혹은 반기독교주의는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대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의 대립 문제가 영적 전쟁과 문화 전쟁으로 가속화되고 그 범위도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강력한 문화적 역류에 휩쓸려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부모, 목회자, 교사, 청소년부 지도자인 우리는 청소년에게 기독교적 지성을 개발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책의 목적

세계관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 앞에, 《완전한 진리》는 비기독교적(또한 반기독교적) 비진리가 만들어진 세상과의 지루하고도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제공해 준다. 저자는 머리말에 본서의 저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책은 그런 갈망,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삶에 일관성을 부여할 전반적인 틀을 찾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성경적 세계관 운동’을 증진시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당신의 믿음을 ‘종교적 진리’라는 사적 영역에 가두어 두도록 하는 성(聖, sacred)/속(俗, secular)의 분리 현상을 확인해 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삶과 일의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실제적이고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접하는 온갖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미궁을 뚫고 나갈 세계관의 적용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세계관을 공부하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기독교를 그 문화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하고 그 권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변혁하도록 풀어주는 것이다.” 동시에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슴”과 “머리” 사이의 뚜렷한 분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의 삶을 예배 및 개인의 도덕과 같은 거룩한 영역과 과학, 정치, 경제 등 공적 영역을 포괄하는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어 양자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배격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런 이분법(dichotomy)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이다.”

1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크게 4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서 책의 기초를 세우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기독교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전통적인 성경적 세계관의 틀인 창조·타락·구속을 통해 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이분법적 사고방식, 분열된 지성 등을 극복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 사실/가치, 공/사, 성/속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 있다. 저자는 이를 ‘분리된 지성’이라고 말한다. 이를 떼면, 자신의 신앙은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시키고 자신의 전문 영역이나 사회 집단에서 유행하는 견해는 무엇이든 받아들이든든지, 교회 일은 가치 있게 여기지만 일상적인 일은 하찮게 여기는 것 등이다. 저자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의심할 수 없는 진리에 도달하고자 종교적 신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성을 절대시, 우상화함으로써 종교로부터 독립된 진리의 창고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카르티식 합리주의는 기독교 내에 비기독교적인 사고체계가 유포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성경적 사고는 무의식적으로 진리의 이분화, 파편화를 주장하는 비기독교적 합리주의적 사고에 지배당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의식적으로’ 모든 학문에 대한 성경적 접근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철학적 접근을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를 해석하는 일련의 사상은 용어와 개념들로 채워진 철학적 도구상자와 같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름의 분석 도구를 개발하지 않으면, 어떤 이슈를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구(잘못된 세계관으로 형성된 세상의 철학적 도구)를 빌려 와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 저자는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전통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이원론에 지배당하는 세속적 세계관을 분석, 진단, 비판하여 그 허구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 정립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일, 사업, 정치 등의 영역에 적용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쳤는지 이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초대교회가 헬라 사상과 만나면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헬라 사상(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의 자연과 은총의 분리)은 물질과 영혼 사이에 뚜렷한 이분법을 설정하고 물질의 영역이 영혼의 영역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때로 완전히 악하다고 여겼다. 구원은 물질 세계에서 영혼을 해방시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금욕적 훈련에 근거하여 이해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사고를 쉼퍼가 비판한 실재에 대한 '이층 구조(two-story)'라고 설명한다. 세상의 철학과 세계관은 이러한 이원론의 영향을 이어받아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사상, 계몽주의, 무신론, 불가지론, 현대를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진화론, 종교적·윤리적 상대주의, 신학적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을 분석, 진단, 비판하고 있다.

2부 최초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저자는 다윈의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다윈주의가 과학의 테두리를 벗어나 얼마나 터무니없는 데까지 나아갔는지, 심지어 미국의 사회적, 법적 제도를 변형시켜 얼마나 파괴적

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밝혀내고 있다. 저자는 다윈주의자들이 진화론, 특히 돌연변이설, 발생반복설 등이 허구로 판명되었음에도 거짓을 진실로 위장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자연주의 철학과 자연과학의 세계관을 옹호하고 나아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세계관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자연주의 철학은 신의 개입이 불가능한 '닫힌 체계'로, 이러한 자연주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과학적 지성, 상식에 기초한 지성은 '꼭 막힌 지성'으로 전락했으며 급기야 자연주의 철학, 진화론은 종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현재 다윈주의는 종교가 되어 자연과학, 생물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 학문은 물론 인간의 윤리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진화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방법을, 법학에서는 법의 진리성보다 사회적 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판결을 주장하는 법적 실용주의를, 교육학에서는 기독교 신앙 대신 자연철학과 실용주의에 근거한 구성주의 교육을, 철학에서는 진리를 자연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이층 구조로 파악하는 신실용주의를 채택·적용하면서 결국 자가당착이라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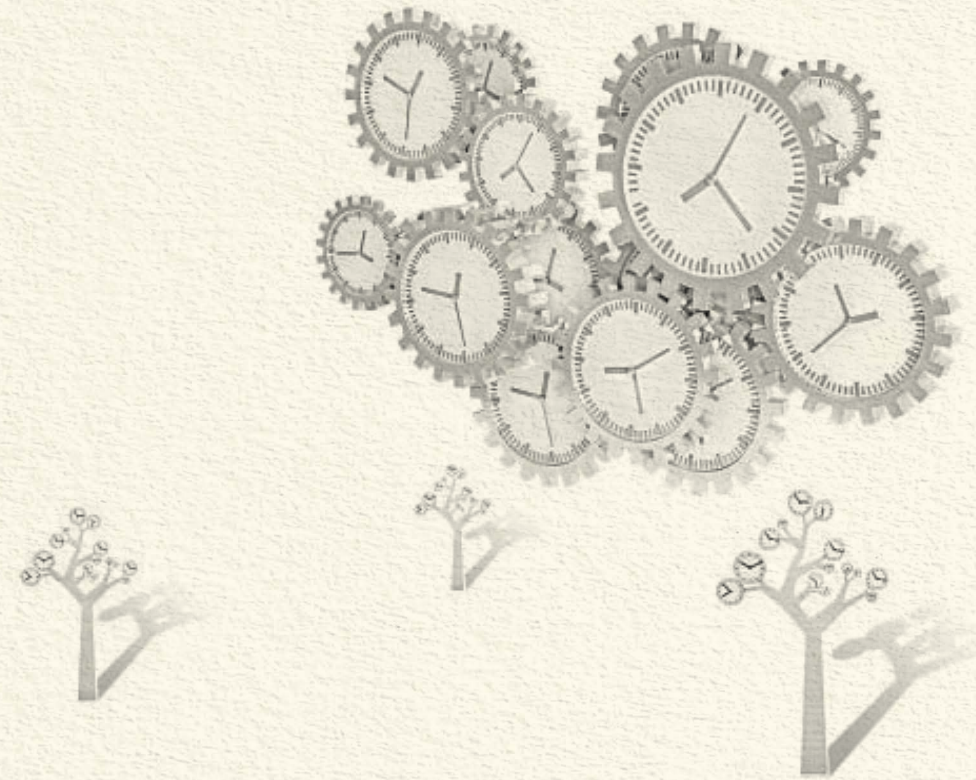
3부 복음주의가 어떻게 지성을 잃어버렸는가

복음주의자들은 왜 강력한 세계관의 전통을 갖지 못했을까? 왜 성/속의 이분법이 그토록 만연하게 되었을까? 미국 복음주의의 역사와 유산을 살펴보면 기독교 세계관적 사고를 방해하는 자멸적인 걸림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극복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복음주의가 교회 내부의 갱신운동으로 지적 전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운동이었음을 발견하였다. 미국의 1, 2차 대각성운동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가르침과 교리, 신학적 진리를 이어가기보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윤리적 측면에 근거하여 개인적 체험과 구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앙고백의 내용이나 학문적 기독교 진리를 중요시하는 전통적 교회가, 대중적이고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복음주의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회심에 초점을 둔 구원론 그리고 통속적인 언어와 민요 사용은 일반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서게 한다는 전도 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육을 영적인 죽음과 동일시했다. 즉, 복음주의가 기독교를 지적 차원이 없는 감정의 종교로만 이해함으로써 결국 종교를 지성과 감성이라는 이

층적 진리로 구분하는 세속적 분위기에 편승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현재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이라 자부하는 복음주의는 토마스 리드(Thomas Reid)가 체계화시킨 스코틀랜드의 상식 철학, 즉 상식적 실재론(common sense realism)에 기초하고 있다. 이 철학은 데이비드 흄의 회의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는데, 그 핵심은 부인할 수 없거나 자명한 경험적 진리들을 확고한 토대로 삼아 지식의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19세기의 사상이 대부분은 하나님의 존재, 선, 창조 등과 같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신학적 교리들을 아무런 반발 없이 자명한 진리, 상식적 실재에 포함시켰다. 저자는 복음주의가 귀납법을 적용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주창한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성경 해석에 반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 '이층 구조'의 세계관은 더욱 견고해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설립된 대학의 신학은 타 학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별개의 학문이 되었고, 종교는 과외활동 혹은 주관적 경험과 연관된 사적 영역으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4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자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 실제적, 개인적 적용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굴복시킬 때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되는 것만이 마음과 지성의 성화에 이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층 구조’를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많은 교회와 기독교 사역이 오늘날에도 사업, 마케팅, 경영 등의 분야를 본질상 중립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그 분야의 최신 기법을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비판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적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저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고 외치면서 세속적인 무기를 들고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나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사역이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기관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완전한 진리》의 일독을 권하면서

낸시 피어시의 《완전한 진리》는 평신도가 읽기에 살짝 부담이 되는 분량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책이 다루는 주제의 무게를 감안하여 일상적인 이야기로 각 부를 시작하는 저자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긴 하지만, 쉽게 손에 잡을 수 없는 무게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의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만큼 귀하고 귀한 책이다. 배교(기독교세계관을 포기함)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국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차원에서 《완전한 진리》가 다루고 있는 기독교세계관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영적 무기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는 개인적 영성, 체험적 신앙, 감정으로 쉽게 동의하는 책보다 《완전한 진리》같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다룬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는 쉼과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분법적 사고, 세계를 총체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세상의 철학과 종교(신학)를 상충부로 밀어 버리고 자연주의와 상대주의로 접근하는 세상 학문의 방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진리를 담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증언하는 이 시대의 성경적 그리스도인, 성경적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영 총신대학교 신학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조직신학 석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공항벤엘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은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입니다.”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며
변혁의 씨앗을 뿌립니다.

기독교세계관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범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인간, 자연, 역사를 보고 그것에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동역회는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신앙과 학문, 그리고 삶이 하나되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학문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삶과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주권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이 사 장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 김의원(백석대 부총장), 양인평(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 사 : 박상은(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합신대 교수), 이강인(엘비전 대표), 전광식(고신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공동회장 : 김성수(고신대 총장), 김승욱(중앙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감 사 : 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실행위원회

위 원 장 : 조성표(경북대 교수)
위 원 : 김미영(한국소도 대표), 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김태환(영지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신국원(총신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이강창(성균관대 교수), 장수영(포스텍 교수), 최용준(한동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연구원장)

연구본부 연구본부장 : 장수영(포스텍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 장수영(포스텍 교수)
부학회장 : 국제협력_손병덕(총신대 교수), 대외협력_박문식(한남대 교수), 학술_김태환(영지대 교수), 연구_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총 무 : 문준호(ACSI Korea) 감 사 : 김홍섭(인천대 교수)
학회이사 : 강영인(서강대 교수), 김홍섭(인천대 교수), 윤완철(카이스트 교수), 조무성(고려대 교수), 황호찬(세종대 교수)
학회이사 및 : 경제/경영(한국가독교경제학회), 형의서(서울시립대 교수), 교육_박영주(아신대 교수), 문화/예술_서성록(안동대 교수),
분과학회장 법학_조영길(8S법무법인 대표), 사회복지_이상무(평택대 교수), 상담/심리_전요섭(성결대 교수),
역사_권태경(총신대 교수), 융합_이우성(STEP1 박사), 의학_김지원(백석대 교수), 철학_양성만(우석대 교수)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이강창(성균관대 교수)
편집위원 : 계영희(고신대 교수), 권정태(호서대 교수), 김경민(전남대 교수), 김동원(전북대 교수), 김정호(국립한밭대 교수), 배용수(성균관대 교수),
박신현(고신대 교수), 신현호(백석대 교수), 유지황(관동대 교수), 이의영(군산대 교수), 조창근(조선대 교수), 현창기(한동대 교수)

세계관연구소 소 장 : 김중락(경북대 교수) 연구위원 : 이요한(말레이시아)

운동본부 운동본부장 : 조성표(경북대 교수)

세계관운동
대외협력위원회_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국제협력위원회_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대표), 중국사역위원회_정수균(선교사), 지역관리위원회_박신현(고신대 교수),
대학청년위원회_최용준(한동대 교수), 언론위원회_강진구(고신대 교수)

교육본부 교육본부장 : 최태연(백석대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 신국원(총신대 교수), 부소장: 이승구(합신대 교수)
미디어아카데미 원장 : 조정민(BASIC Community Church 목사) 운영위원 : 강진구(고신대 교수), 장유진(미코필름 PD), 유지은(PD)

교재개발위원회 위 원 장 : 최태연(백석대 교수)

월간 월드뷰 대표주간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발행인 : 김승욱(중앙대 교수) 편집인 : 신효영

도서출판 CUP 대 표 : 김혜정 마케팅 실장 : 윤여근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 장 : 양승훈 전임교수 : 전성민 간 사 : 이계현
이 사 : 조영택(밴쿠버 코스타 이사장), 박신일(그레이트 한인교회 목사), 김명준(밴쿠버 지구촌교회 목사), 김주영(신세계보험)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CTC 대 표 : 유경상, 팀장: 한부익, 안성희

CMCA 프로덕션 PD : 장유진, FD: 최유리

사무국 사무국본부장 : 최현일(샘병원 연구원장) 대표간사 : 신효영, 간사 : 김고운, 홍정석

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출범하였습니다.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홈페이지 가입 시 자동으로 온라인 회원이 되시며, 일정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은 회비에 준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종류	월 회비	E 매거진	월드뷰 (잡지)	신앙과학문 (동재학술지)	논문 및 칼럼 다운로드	논문 투고자격	동영상 강좌	기부금 영수증
정회원	10,000원 이상	●	●	●	●	●	●	●
저널A	3,500원	●	●					●
저널B	5,000원	●		●				●
저널C	7,500원	●	●	●				●
온라인회원	-	●						

[납부방법]

1. CMS신청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회원님을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자동이체 : 후원자님께서 직접 거래 은행에 가셔서 아래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계좌입금 :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 연간회비 납부도 가능합니다. 사무국으로 문의 주십시오.

*문의 02) 754-8004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특별강좌. 짐 올티우스와 한국기독교학들의 좌담

James Olthuis **짐 올티우스**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의 명예교수로 기독교세계관의 명저자인 브라이언 왈쉬, 리차드 미들턴의 스승이다. 저서로는 〈Radical Orthodoxy and the Reformed Tradition: Creation, Covenant, and Participation〉, 〈The Beautiful Risk: A New Psychology of Loving and Being Loved〉, 〈Religion With/out Religion: The Prayers and Tears of John D. Caputo〉 등이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특별강좌.

일 시 2013.10.28(월) 저녁 7시

장 소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합정동 소재)

*특별강좌로 **사전 등록**만 받습니다.
신청 시 안내 받으실 (이름/소속 및 직책/ 핸드폰/ 이메일)을
대표메일 info@worldview.or.kr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8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가월현, 구재형, 김경현, 김경휘, 김민지, 김병재, 김수경, 김찬호, 김희원, 남지민, 노주하, 생명익강, 영음사,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황보난이, **5천**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봉국, 김성민, 김성범, 김성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정준, 김재우, 김준, 김철수, 김태윤, 김항아, 김해창, 노승욱, 박광제, 박승룡, 박천규, 배기산,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종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윤희, 이인수, 이항숙, 임선재, 임춘택, 임형준, 장한일, 전정진, 전중화, 전충국, 정범채,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최광수, 최동희,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섭, 김영숙, 김진호, 김효태, 민수진, 유명성,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영암교회, 전영식, 직장사역연구소, **1만**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은남, 고현경,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길원평, 김경식, 김경원, 김고운, 김규욱, 김근배, 김남진, 김동준, 김막미, 김보경, 김성경, 김성민, 김성은, 김성인, 김세령, 김세중, 김수홍, 김승남, 김영남, 김영완, 김요한, 김용석, 김우신, 김원희, 김윤권, 김은덕, 김은혜, 김재엽, 김정모, 김정일, 김정호, 김종국, 김준희, 김중훈, 김진아, 김창현, 김판일, 김현경, 김현정, 김형길, 김형수, 김홍식, 김효숙, 나동훈, 남서희, 마민호, 박경원, 박기연, 박능안, 박두한, 박상균, 박성인, 박시윤, 박영주,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지연, 백경은, 백현준,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소종화, 손현탁, 송미정, 송종철, 송철호, 송혜경, 신상형, 신성자, 신진선, 신현주, 신형균, 신호기, 신호영, 안 석, 안영혁, 양병국, 양행모, 양혜원, 엄지은, 오지순, 유건호, 유동준, 유영준,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윤상현, 윤천석, 이 강, 이경숙, 이계심, 이권철, 이규현, 이길형, 이대규,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무, 이상수, 이성수, 이승엽, 이시영, 이신영, 이언구, 이원배, 이윤재, 이은자, 이은주,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수, 이종국, 이준성, 이지연, 이진영, 이학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 영, 임일택, 임지연, 장승재, 장옥경, 장유진, 장인숙,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성록,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향, 조혜신, 차봉준, 차정규, 천성빈, 최삼열, 최성두, 최세진, 최윤영, 최익수,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호영, 추진연, 태영숙, 하진화, 한인관, 한진영, 한혜실, 하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한나, 홍선호, 홍정식, 홍준호, 홍철의, 황규영, 황세환, 황태연,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백은미,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강용란, 김동우, 김세광,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문석윤, 박영혜, 박헌호,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손향아, 오한나, 우시정, 유경상, 유상원, 이 건, 이명희, 이윤규, 전광학, 정해영, 조창근, **2만2천5백** 진영규,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지원,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서성록, 양성만, 오익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희욱, 장수영,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4만** 신성혜,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서진희, 송인규,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강진규, 김인섭, **10만** 김미영, 김승태,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손봉호, 양인평, 전광식, 최태연, **12만** 황의서, **30만** 김승욱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2만** 대화복지재단,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운교회, 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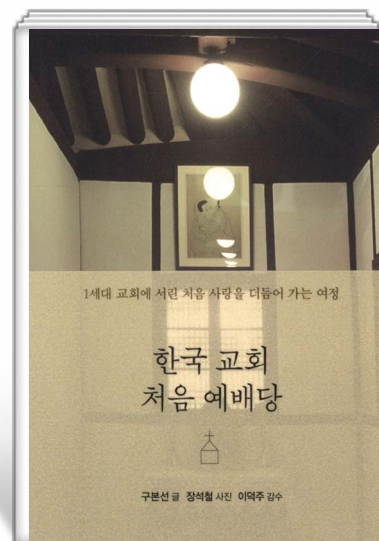
※회원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분기별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월드뷰』는 후원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한국교회, 처음 예배당

이상규 (고신대학교 교수, 역사신학)



구본선, 장석철 | 『한국교회, 처음 예배당』 | 홍성사, 2013

모처럼 마음에 드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한국교회, 처음 예배당』 제목도 그렇지만 섬세한 편집, 아름다운 장정, 사진을 곁들인 해설, 무엇보다 책을 감싸고 있는 역사의 짙은 향기가 나를 유혹했다. '1세대 교회에 서린 처음 사랑을 더듬어 가는 여정'이라는 해설적 인도가 또한 매력적이었다.

한국교회의 역사와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의 신심(信心)이 어우러져 세워진 예배 공간으로서의 교회당, 저자는 그 역사의 자취를 따라 전국을 돌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22개 예배당을 만났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정동제일교회, 승동교회, 강화읍교회, 온수리성당, 서도중앙교회, 수촌교회 등 6개 예배당을, 충청지역에서는 청주제일교회, 청주수동교회, 진천교회, 음성교회, 부대동교회, 공주제일교회, 강경북옥교회 등 7개 예배당을, 전라지역에서는 두동교회, 금산교회, 목포양동교회, 목포중앙교회 등 4개 예배당을, 경상지역에는 대구제일교회, 부산교좌성당, 안동교회, 척곡교회, 행곡교회 등 5개 예배당을 소개한다.

이들 예배당은 각기 다른 형식과 구조로 되어 있다. 강화읍성당이나 온수리성당과 같은 전통 한옥 예배당이 있는가 하면, 정동제일교회나 공주제일교회 등과 같이 붉은 벽돌 예배당도 있고, 대구제일교회나 안동교회처럼 석조 건물도 있다. 한국교회 건물의 구조는 거의가 장방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영천의 자천교회나 강경북옥교회는 정사각형으로 지어졌다. 또 전라도 김제의 금산교회나 전북 익산의 두동교회는 ㄱ자형이다. 초기 한국교회에서 ㄱ자형 예배당은 반상(班常)의 차이만큼이나 심했던 남녀유별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구별이 없지만(갈 3:28), 유가적 윤리가 깊이 배어 있는 조선에서 남녀가 동석하는 것은 따를 수 없는 낯선 가치였다.

그래서 ㄱ자형 교회는 '한국적' 건축 양식이다. 목회자와 여자 성도 사이에도 휘장을 쳤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남녀 간의 구분은 이해할 만하다. 현재 남아 있는 김제시 금산의 ㄱ자형 예배당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에 소개된 22개 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구본선)와 사진작가 겸 건축가(장석철)의 만남이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한국에는 5만여 개 이상의 예배처가 있지만 80년 이상의 건축령을 가진 예배당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국을 돌며 신앙과 역사가 아우러진 예배당의 역사 흔적을 찾아 잊혀진 세월의 간격을 메워 주고 우리의 신앙유산을 소개해 주고 있는 이 책은 기독교문화유산보존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신앙과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신앙과 역사가 간간히 소개·언급되고는 있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것과 한국 예배당 건축의 역사적 추이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소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구 교회의 예배당 양식은 건축 당시 교회가 처한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4세기 이후로는 서양의 건축 양식을 반영하기도 했다. 초기 교회는 예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두라-유로포스(Dura-Europos)에서 256년경의 것으로 최초의 교회당 건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때까지는 가정교회 중심이었다. 예배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 없었고 개인 주택을 예배처로 개조한 형태였다. 브래들리 블루(Bradley Blue)와 리처드 크라우다이어(Richard Krautheimer) 등에 따르면 기독교가 4세기 초 로마 제국에 공인받기까지(30-313년)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소는 세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첫 번째 시기는 대략 150년까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소는 신자들의 가정집이었다.

그러나 150년경부터 250년 어간을 포괄하는 두 번째 시기에는 개인 주택을 개조하여 집회소로 사용했고, 대략 250년에서 313년까지의 세 번째 시기는 콘스탄티누스가 바실리카 교회당을 세우기 전으로, 큰 건물이나 홀이 집회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처 및 집회소는 개인의 가정집(domus ecclesiae)에서 개조된 가정집으로, 보다 넓은 홀이나 건물(aula ecclesiae)로, 그리고 4세기 이후 바실리카(Basilica) 교회당으로 변천했다는 것이다.

바실리카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방형의 건축 양식으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개방된 홀이 있고 줄을 맞추어 기둥이 세워져 있다(列柱). 이것은 당시 로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으로, 줄을 맞추어 세워진 기둥 위에 지붕을 덮은 공공건물이나 시장 등이 있었다. 바실리카의 출현은 교회당 양식 혹은 기독교 건축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 후 유럽 사회의 건축 양식과 함께 교회당 구조도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점 또한 자연스런 현상인데, 중세의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혹은 네오 고딕식 등 다양한 형태가 그것이다.

그런데 피선교국인 우리나라의 교회당은 선교국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고유한 혹은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선교 초기에는 전통 한옥을 집회소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는 전통 한옥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다. 강화읍성당이나 온수리성당 등 성공회의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강화읍교회당을 건축했던

트롤로프, 곧 조마가 선교사는 조선 땅에 오면 조선 옷을 입어야 하듯이 교회당 건축 양식도 조선식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의주로 가서 백두산 적송(赤松)을 구해 뗏목으로 강화까지 운반하였고, 기와도 강화 흙으로 구웠다고 한다. 당시 궁궐이나 사찰은 사방형 건물로 정문이나 대문을 남쪽에 두었지만, 트롤로프는 정문을 서쪽에 두는 서향 건물로 짓고 정방형 바실리카 양식을 따르되 기와를 올리고 추녀를 달아 부연을 연결하여 부드러운 곡선미를 표현함으로써 한국적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한다. 개신교에서는 예배당 건축에 한국적인 것보다는 서구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1910년 이후에 건축된 한국(개신)교회는 보통 19세기 미국교회의 건축 양식에 따라 세워졌다. 돌아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는 분별없이 서구적인 예배당 형식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회당 건물은 역사와 신학의 산물인데, 서울 한복판에 아름답다며 고딕식 건물을 건축하는 것 또한 분별없는 모방이 아닐까.

이러한 흐름에도 서도중앙교회, 청주수동교회 등은 예외적으로 한국적 정취를 보여주는 곳이다. 100여 년 전 서구적인 대세를 거부하고 세워진 한옥 예배당이나 서양식 구조를 따르되 마룻바닥 등 한국적 형식을 가미하여 세워진 예배당에는 우리의 고유한 그 무엇이 담겨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진천교회의 경우처럼 팔작지붕 겹처마에 십자가 세 개를 장식한 한옥 예배당을 건축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 책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형태의 예배당에 대한 건축학적 안내와 건축에 얹힌 스토리텔링으로 한국교회의 시원과 발전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일종의 사진으로 보는 한국교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저자의 한국교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예배당 건축에 얹힌 담화들은 미지의 땅을 찾아가는 나그네를 위한 지도와 같다. 또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선교사의 도래와 교회 설립, 예배당 건축과 신앙 전승에 대한 소중한 안내서가 되어 줄 만하다. 이 책을 들고 저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프레드릭 랭브릿지(Frederick Langbridge, 시인 1849-1923)의 말이 생각난다. “똑같은 창살로 내다보는 두 사람, 한 사람은 흙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본다.” 이 책을 통해 땅과 하늘, 신앙과 역사, 건물과 사람을 동시에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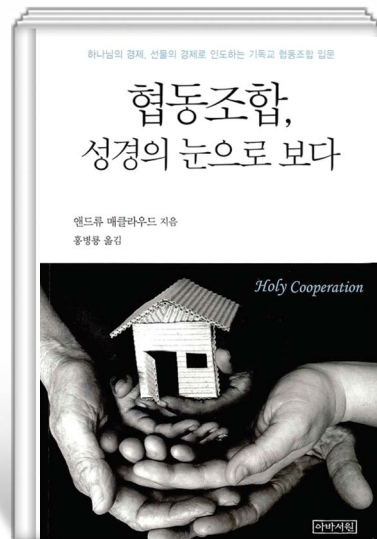


이상규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이자 부총장이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거쳐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신학대학, 호주신학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사상연구소장, 신학과장, 교무처장, 신학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연구이사, 개혁신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으로 있다. 쓴 책으로는 『교회개혁사』, 『교회개혁과 부흥운동』,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교양으로 읽는 역사』 등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진하면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창출된 재화는 결국 모든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자유 시장 경제의 이념은 기대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양편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국민적 공감대였던 것을 보아도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소수의 생각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협동조합”이라는 오래된 전통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새롭게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러저러한 사회적 이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시대정신의 요구 때문이다. 시대정신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요 이슈들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중요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저자 앤드류 맥클라우드스는 협동조합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20년간 현장에서 뛰어온 사업가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성경적 묵상은 정교하고 극히 현실적이다. 그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협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경험과 수많은 사례를 통해 누구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삼위일체” 신학에서 찾는다. 즉,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도 공동체를 이룰 때, 그 형상이 올바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앤드류 맥클라우드 지음 | 홍병룡 옮김 | 아바서원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동역회 연구본부장)

저자는 홀로 완전하시어 어떤 결핍이나 필요도 없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마치 무엇이 필요하기라도 한 듯 서로 영화롭게 하시며 협동하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주목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치 타락한 인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듯 사사들과 왕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 조력자로 세우시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던 성경의 이야기와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협동이라는 주제를 통해 새롭게 읽어낸다. 대체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중앙 집권화된 지휘체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섬김의 지도자로 나눔과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하셨다는 것과, 초대교회가 통제와 확일성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것을 공산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성경적인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던 점을 인용하며 거리를 둔다.(p.133)

책의 마무리 부분에는 협동조합의 원리들을 성경적인 원리에 비춰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의 백미가 아닐까 한다. 특히, 기독교인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는 배타성이 협동조합이 가진 열린 공동체로서의 속성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고민하는 부분은 흥미롭다.

또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권리를 나누어 갖는 민주적인 통제 원리가 성경적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은 매우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개개인이 서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질서 가운데 의도하신 결과로 민주적인 통제를 추구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초대하며 이 책을 마무리 한다. 그는 뜻을 같이하는 몇 사람만 모여도 당장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초대가 자칫 승리주의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 또한 잊지 않는다. 주의 뜻이라 확신하는 무언가를 도모할 때조차 우리는 우리가 가진 수단 만으로는 그것을 이루어 낼 수 없는 죄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시도할 것을 종용하며 씨앗을 심는 자가 되도록 초대한다.

“협동조합은 우리의 경제질서 전체를 버리지 않고도 경쟁과 이윤을 상업의 일차 동기로 여기는 행습을 제거할 수 있다.”(p.183)

저자가 가진 비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 부분이라 생각된다. 타락한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모두 버리지 않고도 그 악한 행습을 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 그것은 참으로 고상한 비전이다. 창조-타락-구속의 변혁적 세계관을 가진 모든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비전이 아닐 수 없다.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비전을 갖고 실천하기 원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장수영 현재 포항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며 연구본부 본부장이자 기독교문연구회 학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사)나눔과 기술, 크리스천 과학기술인 포럼의 공동대표이다.



The all-new OHAUS
EXPLORER

Introducing the most intelligent
and intuitive balance ever to
come from the
mind of OHAUS



«Pipette

«pH Meter

새로워진 오하우스

- ✓ 정전기 방지 코팅유리
- ✓ 플터치 패드 방식
- ✓ 적외선 감지센서 기능
- ✓ 자동 도어 방식

Specifications

Model	EX124	EX224	EX324	EX223	EX423	EX623	EX1103	EX2202	EX4202	EX6202	EX10202	EX6201	EX10201
Capacity (g)	120	220	320	220	420	620	1100	2200	4200	6200	10200	6200	10200
Readability (g)		0.0001			0.001				0.01			0.1	
Repeatability std (g)		±0.0001			±0.001				±0.01			±0.1	
Linearity (g)		±0.0002			±0.002				±0.02			±0.1	
Stabilization Time (sec)		≤2	≤3		≤1.5				≤1				
Weighing Applications	Weighing, Percent Weighing, Parts Counting, Check Weighing, Dynamic/Animal Weighing, Filling, Totalization, Formulation, Differential Weighing, Density Determination, Peak Hold, Ingredient Costing, Pipette Adjustment, SQC												

"생생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으세요"

YouTube ~ www.youtube.com/ohauschannel

f www.facebook.com/ohauscorp



특집 '분단을 넘어서'

올해로 종전 60주년을 맞이하였다. 과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러나 오랜 분단으로 통일에 대한 세대 간의 이해와 방향이 상이하다. 그럼에도 "분단국가"는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며, 지금도 우리는 전시 상황이다. 이에 현재 북한의 실태와 상황을 진단, 북한을 바로 이해하여 앞으로의 통일을 준비하고자 한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분단을 넘어서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소장)

올해로 6.25 종전 60주년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통일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북한 선교의 특수성, 대상인 북한을 바로 알고 통일의 내용과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자료나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일하면서 통일 문제를 다루었던 경험들, 북한과 회담을 하면서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 남북 대화를 위해 평양을 오가며 느낀 소감과 선교를 위해 중국에 다닌 경험담을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총성 없는 전쟁

지난 1985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회담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을 때 일이다. 북한은 우리 대표들을 평양의 학생소년궁전이라는 곳으로 안내하더니 학생들의 울동과 체조를 관람시켰다. 관광버스를 타니 안내원이 참관일정이 바뀌었다면서 갑자기 모란봉 경기장으로 안내했다. 김일성, 김정일은 등이 앉은 주석단석에 도착해서 보니 경기장에 약 10만 명이 운집해 있었고 정면으로 여고생 2천여 명이 카

드 섹션을 벌이고 있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여학생들의 전통무용, 남학생의 집단 체조에 이어 남자 2천 명이 인민군 복장으로 총검술을 하는데, 중간에 미군 복장을 한 사람들을 땅에 눕혀놓고 찌르는 동작을 했다. 이때 카드섹션과 음향 전광판에서 'ㄷ'과 'ㄷ' 글자를 새겼는데, 이는 "타도 미 제국주의"의 약자였다. "사회주의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원하리라! 김일성 수령님 만세 무궁하소서!"가 이어지고 군중들은 열광했다. 한마디로 김일성 우상화, 북한 체제 선전, 공산주의 체제 선전 등 정치선전 쇼였다.

남북대표가 방문할 때 자극하는 선전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는 합의서 위반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남한 측 대표는 일제히 일어나 10만 군중 앞에서 당당하게 퇴장했다. 호텔에 돌아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람 도중 경기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갑자기 모란봉 경기장으로 안내했다. 김일성, 김정일은 등이 앉은 주석단석에 도착해서 보니 경기장에 약 10만 명이 운집해 있었고 정면으로 여고생 2천여 명이 카

설명했다. 많은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였다. 이 사건으로 남북 대표자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다. 호텔에 있던 북측 연락관마저 철수해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북한이 화가 나서 남측 대표들을 인질로 삼으려 한다는 말까지 들렸다. 평양의 상황을 서울 본부에 알린 후, 새벽 한 시쯤 되어 호텔 방으로 들어가 잠옷을 꺼내기 위해 트렁크를 열었는데 누군가 내 트렁크를 뒤진 흔적이 있었다. 아마 공무원이 들어와 회담 서류를 훔쳐보려 했던 모양이다. 다행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중요한 서류는 미리 옆방에 있는 보안요원에게 맡겨 두었기에 문제는 없었다.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10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놀라서 수화기를 드니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끊어졌다. 30분 후 또 전화기가 울려서 받으니 이번에도 그랬다. 이런 전화가 새벽 4시경까지 반복되었다. 이전 정말 자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노크를 했다. 문을 열어 보니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 다시 노크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정신이 몽롱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채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회담 시작까지 두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컨디션으로는 회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모란봉 경기장 퇴장 사건으로 힘든 회담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애송하는 성경구절인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하며 회담에 임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회담이 시작되었다. 북한 측 이종을 수석대표는 자신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것을 남측 대표들이 무시했으니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좌우에 있던 북한 측 두 대표도 잇달아 말했다. 자기들 행사는 순수 체육문화행사인데 남측 대표들이 무례한 행위를 했다면 절대 용납 못한다고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종을 단장에게 북측은 발언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회담에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 법인데, 시작하자마자 북측에서만 세 사람이 잇달아 발언권을 독점하면 이것이 무슨 회담이라고 따졌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 가지만 물어볼 터이니, 간단히 대답해달라고 했다. 첫째 질문은 어제 모란봉 경기장의 매스게임은 누가 봐도 군사 매스게임이었고 우리는 적

십자회담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데, 적십자의 기본 정신인 인도주의와 군사 매스게임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였다. 둘째 질문은 학생들의 전쟁 놀이와 이산가족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였고, 세 번째는 행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우리를 모란봉 경기장으로 데려간 것은 사기 행각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이종을 대표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흥분해서 손짓을 해가며 “송 선생은 회담할 때 항상 반동적인 발언만 한단 말이야. 그렇게 나오면 신상에 안 좋아요. 두고 보시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협박을 했다. 그러자 우리 남한 측 다른 대표들도 따라서 들고 일어나 이수라장이 되면서 회담은 중단되고 말았다. 회담이 결렬되어 판문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북측 부단장 서성철이 내 옆에 앉았다. “송 선생은 두 따님이 있대지요?” 하고 물었다. 또 “두 따님이 얼굴도 예쁘고 서울 예술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한다지요?” 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잘 아느냐고 물으니, “아, 그거야 초보 지식이지요.”라고 하는 것이다. 혹시나 가족을 위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들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남북대화란 것이 통상적인 국가 간 대화와 달리 총성 없는 전쟁이기에 대화에 과잉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즉 기독교와 주체사상 간의 영

적 싸움과도 같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라는 말씀처럼 항상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해야 한다.

불바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 1994년 3월에 판문점에서 남북특사 교환회담이 열렸을 당시 나는 우리 측 수석대표였다. 의제는 남북 두 정상이 직사를 교환하는데, 그 직사의 임무를 무엇으로 하고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였다. 회의를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 연락관이 북한 측 대표 박윤수 단장에게 메모를 건네주었다. 메모를 본 박 단장은 서류 한 장을 빼어 들고, “송 선생, 이제 중대한 제안을 하겠소. 신중히 들어주시요.”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서류를 읽는 중에 “남측의 팀 스피릿 훈련은 북침 훈련이다. 남침이 핵문제로 국제 공조체제를 하는 것은 북측의 목을 조이는 것이니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처하겠다. 우리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송 선생, 당신도 살아남을 것 같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소? 우리는 몇 배로 갚아줄 것이요. 불바다 발언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는데, 이것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지요?” 하고 되물었다. 그러자 박 단장은 얼굴이 벌게지면서 답을 하지 못했다. 공식입장이라고 했다가는 전쟁이 날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자신이 우습게 되기에 우물쭈물하였다. 우리는 “할 말 다 했으니 나가겠다.”고 하며 회담장을 나와버림으로써 회담은 결렬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노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기도를 드렸다. 서울에 돌아와 어느 친구가 내 머리를 보더니 머리털이 그슬리지 않은 것을 보니 불바다에서 살아나온 사람 같지 않다는 농담을 던졌다. 그 후 불바다 발언이 뉴스에 나왔다. 당시 전쟁이 일어날까봐 강남 일대에서는 라면과 쌀을 사재기하기도 했고 적잖은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 또 재미교포들의 안부전화가 쇄도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서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때 내가 기자들에게 “깃는 개는 물지 않는 법”이라는 말을 하면서, 기습 공격을 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공격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북한의 불바다 발언은 협박이니 안심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 국방부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이 정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했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무렵 북한은 휴전선 쪽에 240mm 방사포 140문을 배치했다.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포로 한 번

에 24발이 발사되는데 사정거리가 60~65km 정도니 서울 상공을 지나 수원까지 미친다. 특히 이 포탄은 미사일이 아니어서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요격이 안 되었다. 이 방사포뿐 아니라 북한은 기타 포를 약 3000여 문 갖추고 있었는데, 이를 일제히 서울을 향해 1시간 동안 퍼부으면 서울의 1/3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게다가 포탄이 떨어져 LPG통, 도시가스 파이프, 주유소 등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참사가 벌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남한도 대응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우리도 북한의 방사포와 비슷한 다연장로켓을 휴전선에 배치해서 맞대응을 하자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평소에 방사포 진지 위치를 파악해서 북한이 방사포 사격을 시작하면, 즉각 F-15 전투기로 폭격하도록 작전계획을 짰다. 지난 2월 핵 실험에 성공한 이후 김정은은 100일 동안 전쟁 협박 쇼를 벌였다. 서울은 물론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든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국민들이 거의 동요하지 않았고, 외국 자본도 철수하지 않았다. 아마 지난번 불바다 발언으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다. 결국 북한의 불바다 발언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던 셈이다.

사랑의 원자탄

또 이런 일도 있었다. 평양에 갔을 때 조선기독교연맹 간부가 안내원을 한 일이 있다. 조선기독교연맹은 북한이 자기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

다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만든 위장단체다. 그 조직의 간부인 조인덕 씨가 내가 3박4일 평양에 머무는 내내 함께했다. 대화 중 6.25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남조선이 미제와 짜고 벌인 북침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소련 자료를 인용하며 남침전쟁이라고 설명했더니 계속 우겼다. 논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제를 돌려 조선기독교연맹에서 혹시 남한이나 해외의 기독교 서적을 구입해서 보는지 물었더니 자기들도 열심히 책을 구해서 읽어 본다고 했다. 그래서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가 물었다. 모른다가에 설명해 주었다.

손양원 목사의 삶, 즉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른 일, 여수·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 청년을 살려내어 회개시키고 양아들로 삼은 일, 6.25 때 피난 가라는 권유를 물리치고 교회를 지키다가 인민군에 사살된 일, 나병환자의 환부에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빨아낸 일 등을 설명해 주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조인덕 씨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물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우면 〈사랑의 원자탄〉이 영문으로도 번역되어 있으니 사서 읽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다. 사납던 목소리가 친절해졌다. 그가 사색을 한다는 느낌도 받았다. 이튿날 평양제일고등중학교를 시찰하는데, 과학시간에 컴퓨터로 공부하는 모습이나 실내 수영장도 보여주었다. 일

행들보다 먼저 시찰을 끝내고 자동차로 오는데, 조인택 씨가 소감을 묻기에 생각보다 시설이 좋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거야 시범학교니까 그렇지요.”라며 웃었다. 그가 마음을 좀 열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며 승용차로 판문점까지 왔는데, 헤어질 때 조인택 씨가 구석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일전에 들려준 이야기 잊지 않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 눈에 선하다.

현재 북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한다. 거기서 복음을 접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하교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추정에 의하면, 중국의 탈북자 중 약 10만 명 정도가 돌아갔고, 그중 3만명 정도가 복음을 접하고 돌아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북한은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해에 평양 시내를 물론, 도시나 내륙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산간 오지로 강제이주시켰다. 그런데 1990년에 중국이 삼자교회를 허용해 주면서 이 동북 3

성에 조선족 교회가 설립되었다. 1991년 한중수교 이후 우리 선교사들이 이 동북 3성에서 조선족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친 결과, 조선족 교회가 크게 확장되었다. 그런데 1995년 북한에 식량난이 발생하면서,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했다. 이 탈북자들의 2/3가 평안북도나 함경북도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이 중에는 1953년에 강제이주된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중국으로 넘어오자, 이미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과 조선족 교회가 힘을 합쳐 넘어온 탈북자들을 포용했다. 그들을 안내해서 쉼터라고 부르는 mission home에 데려가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복음을 전했다.

여호와이레.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탈북사태를 미리 아시고 1990년부터 중국에 조선족 교회와 우리 선교사들을 대기시키셨다가 이 탈북자들을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시켜두셨다. 1995년의 북한 지하교회 상황을 보면, 신앙 제1세대는 거의 사멸했고, 신앙 2-3세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 지하교회라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중국에서 복음을 접한 탈북 성도가 돌아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이 신앙 2-3

세대에도 전달 되었다. 이때 그동안 처벌이 무서워서 자녀에게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했던 신앙 1세대 부모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온 자녀를 보고 “내가 전에 집사였다. 너의 할머니가 권사였다. 너의 아버지가 장로였다.” 고백하면서 온 가족이 부어안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결국 꺼져가는 불꽃 같았던 신앙의 명맥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회복된 것이다. 이로 인해서 6.25 전쟁 이후 2만2천 명으로 추정되던 북한 교인이 지금은 약 30-5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가?

(이어서 다음 호에는 북한 지하교회의 실태와 북한의 상황을 다루도록 하겠다.)

애국자들

만원 비행기가 공중에서 고장이 났다.

기장이 기내방송을 통해 몇 사람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이 죽는다 했다.

귀족의 임무(oblige noblesse)에 충실한 영국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며, 여왕을 구하소서”(God save the queen!) 하고 뛰어내렸다.

다음에는 세계 최강국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인이

“미국, 그 아름다움이며”(America, the Beautiful!)를 외치면서 뛰어내렸다.

자존심 강한 프랑스인이 뒤질 수가 없었다.

“프랑스 만세!”(Vive la France!) 하면서 뛰어내렸다.

프랑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인도 체면을 세워야 했다.

“모든 것 위에 독일!”(Deutschland über alles!) 하면서 뛰어내렸다.

그때 기장이 방송했다.

“이제 딱 한 분만 더 내리시면 나머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벌떡 일어났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Let my People Go)를 크게 외치면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아랍인을 집어 밖으로 내던졌다.

기독교 세계관 10월 강좌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개혁이 뭔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일시 2013.10.1.(화) 저녁 7시
- 장소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세미나실(합정역 부근)
- 주제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개혁이 뭔데!
- 강사 김기현 목사 VS 최태연 교수

- 등록비 1만원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담당 : 김고운 간사)

제30회 기독교학문학회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 : 기초와 실천”
발표논문접수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제30회 기독교학문학회를 맞이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학문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논문을 발표하는 장으로, 기독교학문역사의 3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한국 기독교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3.11.16.(토)
- 장소 성균관대학교(서울캠퍼스) 호암관, 국제관
- 주제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 기초와 실천
- 주제발표자 신국원(총신대), 송인규(합신대)
- 종합토론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웨슬리 웬트워스(IVF)
- 논문발표 신청마감 2013.10.4.(금)
** 관련 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제출일 2013.10.21.(월) 오전 9시
- 등록비 2만원
- 문의 (학회) 02-3272-4967 이메일 gihakyun@daum.net

이번 학회에서는 신진 기독교학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미나와 좌담, 질의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20여 년간 수고해 주신 중앙대학교 김승욱 교수님께서 “(신진 기독교자 세미나) 기독교자의 길, 가이드”를 특강하실 예정입니다. 인원 확인을 위해 미리 신청 받습니다. 참여하실 분의 “성명/이메일주소/소속 및 직책/ 핸드폰”을 적어 메일로 보내주시십시오.

- 일시 2013.11.16.(토) 오전 10시-12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서울캠퍼스) 호암관 3층
- 주제(신진기독교학자세미나) 기독교자의 길, 가이드
- 강사 김승욱(중앙대)
- 문의 (학회) 02-3272-4967 이메일 gihakyun@daum.net

지난 사무국 소식

지난 총회시, 이사 임기 만료되어 선임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동역회의 오랜 동역자이신 송인규(합신대) 교수님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동역을 기대합니다.

〈신앙과 학문〉 세트 판매 및
18권 4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이 2013년 마지막 호의 투고접수를 받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앙과 학문〉을 세트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십시오.

18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문의 02-3272-4967(학회)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기독교세계관 심화강좌
짐 올티우스(Jim Oltius) 좌담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 명예교수인 짐 올티우스의 특강이 10월 28일 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의 심도 있는 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역회 임원강좌이자 신청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일시 2013.10.28.(월) 저녁 7시
- 신청 nfo@worldview.or.kr
(성명/이메일주소/소속 및 직책/ 핸드폰 기재요망)
- 문의 02-754-8004 (담당 : 신효영 간사)

[PAUA(범아시아·아프리카대학협의회)]
강의하실 교수님을 모집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쿠미대학에서 의대나 농업분야, 에너지학과 및 컴퓨터 학과에서 강의해 주실 강사진을 모집합니다. 한학기, 짧게는 2주간이라도 함께 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kmu.ac.ug
- 문의 박시원 간사
(국제의료협력단 070-4186-6995)

OPEN LECTURE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독교세계관 오픈강좌

01 WORLDVIEW LECTURE

창조 타락 구속

강사 신국원(총신대 교수)

일시 11.2(토) 오후 1시-5시

02 WORLDVIEW LECTURE

하나님 나라

강사 이승구(합신대 교수)

일시 11.30(토) 오후 1시-5시

장소 SICA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등록비 1만원

신청 이름/소속 및 직책/ 핸드폰/ 이메일과 해당 신청강좌를 기재하여 대표메일 info@worldview.or.kr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안내메일을 드립니다.

친구나 함께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 모였네 두 손 들고
그분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한동대학교

-한동로고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동으로 온 친구들이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평생 간직하길 바라며 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한동로고송 작사, 작곡가 95학번 정승희 동문-



©정일권

*www.godpeople.com 에서 'HANDONG' 을 검색하시면 한동로고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우리는 한동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갈대상자' 참여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신청 : 054-260-1063 / sarang@handong.edu / <http://sarang.handong.edu>

문자일시 후원 : #89491995 '갈대상자' 입력 후 발송 (1건 10,000원 후원)



한동대학교

- 1)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인 이야기 QR코드
- 2) www.handong.edu 확인